

어린이책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

주제로 뽑은 눈에 띄는 어린이책

어린이책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됐던 '죽음'이나 '성'을 주제로 다룬 동화책이 있는가 하면 '신화'를 다룬 책들은 성인도서 시장의 신화바람에 힘입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쏟아져나오고 있다. '전통문화'나 '현장 체험 학습'을 담은 책들은 7차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더욱 다양한 내용을 담아낸다. 여성적 시각에서 조명한 '여성인물'에 대한 책들은 어린이책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해가고 있고, 월드컵에 맞춘 '월드컵' '축구' 책들도 출간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참신하고 눈에 띄는 책들을 골라 주제별로 소개한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운명 '죽음'

어린이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죽음의 문제는 어른들에게도 두렵고 당혹스러운 문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은 엄연한 현실이고, 어린이들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책들은 주로 가까운 사람이나 동물의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 할아버지》(릴리스 노만 · 노엘라 영, 최정희, 미래M&B)는 늘 그 자리에 있던 할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오는 상실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담담하게 할아버지를 추억하면서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아이의 눈높이로 담아낸다. 《굿바이 마우지》(로비 H. 해리스 · 잔 오머로드, 햇살과나무꾼, 언어세상)에서 죽음의 대상은 애완용 쥐 마우지다. 아이가 쥐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맘껏 울고 슬퍼하고 질문하면서 쥐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한편 《작별 인사》(구드룬 맵스, 욘 핀스터, 문성원, 시공주니어)는 죽음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뇌종양으로 병원에 실려가 죽게 되기까지 짧은 시간을 '나'의 입장에서 묘사한다. 선부른 위로도 희망도 주지 않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한다. 《나뭇잎 프레디》(레오 버스카글리아, 이경덕, 창해)는 나뭇잎의 한살이에 빗대어 인간의 삶과 죽음을 성찰하게 한다. 죽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호기심보다는 생명의 소중함 일깨우는 '성'

어린이들에게 성을 이야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부

모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동화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성을 이야기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상한 곳에 털이 났어요》(배빗 콜, 최성희, 여명미디어)는 아기곰 테드를 등장시켜 취학전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춘기 때 나타나는 신체적 생리변화와 감정의 변화뿐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도 강조한다. 《아가야, 안녕?》(제니 오버랜드 · 줄리 비바스, 김장성, 사계절)은 엄마가 아기 낳는 과정을 사실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한편 성폭력에 관해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도 귀기울여볼 만하다.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마리-프랑스 보트 · 파스칼 르메트르, 홍은주, 문학동네)는 유괴나 성폭력의 순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우화적인 그림으로 보여준다. 《운하와 소녀》(트레이 르넵, 조현실, 비룡소)는 성폭력을 당한 소녀의 심리를 진지하게 묘사한 청소년 소설이다.

일찍 사춘기가 시작된 어린이들의 부모라면 《엄마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달라요》(김난선 · 정승각, 사계절)를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책은 생명과 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성지식부터 성기의 구조, 성행위 등을 구체적인 그림과 함께 이야기해준다.

인간의 원형적 상상력 담긴 '신화'

그리스 신화 열풍이 어린이책 서가에 불어닥친 지도 오래됐다. '만화로 읽는' '동화로 읽는' '우리 아이 처음 만나는' 등의 수식어를 붙이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리스 신화 책이 서점에 도열해 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생략되고 축약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파랑새어린이에서 나온 <동화로 읽는 그리스 신화(전24권)> 시리즈(메네라오스 스테파니데스, 김세희 외) 역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내용을 조절했지만 그리스 신화 연구가인 지은이가 직접 어린이를 위해 쓴 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리스 신화를 '올림포스의 신들' '신과 사람들' '영웅들' 등의 주제로 묶어 보여준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제우스였다면?》《내가 헤라클레스였다면?》(이상 김영숙, 프리미엄북스) 같은 제목을 단 <초등학생을 위한 생각하며 읽는 그리스 신화> 시리즈도 재미있다. 엄마가 들려주는 형식으로 돼 있는 이 책은 "상상해볼까요" "표현해볼까요" 등을 덧붙여 신화를 어린이들이 직접 생활과 연관 지어볼 수 있도록 했다. 《유니콘의 신비한 동물들》(마가렛 마요 · 제인레이, 문우일, 국민서관)이나 계절별로 엮은 <밤하늘 별자리 이야기> 시리즈(우리교육)처럼 신화에서 주제에 맞는 것들만 골라 엮은 책들도 있다.

그리스 신화를 비롯해 다른 문명의 신화들로 넘치는 서가에서 우리 신화를 엮어 꾸준히 출간하고 있는 <이 세상 첫 이야기> 시리즈(정하섭, 창작과비평사)는 더욱 빛나 보인다.

우리 것의 소중함 1990년대 보림의 전통문화 그림책 일깨우는 '전통문화' <술거나라> 시리즈가 이끌었던 전통문화 그림책의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물놀이 이야기》《그림 옷을 입은 집》 두권이 나온 사계절의 <우리 문화 그림책> 시리즈는 그 흐름을 잇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 이 시리즈는 주제가 되는 전통문화로 이야기를 꾸며 아이들이 좀더 쉽고 재미있게 전통문화를 받아들이게 한다.

전통문화를 담은 책들 가운데 또다른 흐름은 어린이 교양서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햇살과나무꾼 · 한창수), 《우리 문화유산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햇살과나무꾼 · 한창수), 《조상들의 지혜가 하나씩 15가지 생활과학 이야기》(햇살과나무꾼 · 김혜숙) 등 채우리에서 펴내는 <손에 잡히는 옛 사람들의 지혜> 시리즈는 전통문화를 지혜라는 주제로 아우르고 각각의 소주제로 다시 엮어 이야기식으로 풀어냈다. 《어린이를 위한 주강현의 우리 문화(전2권)》(주강현, 아이세움)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사를 재미있게 풀어나간 본격 어린이 교양서다. 각 소주제별로 상세한 사진을 곁들이고 '마을지킴이' '집안지킴이' '옹기 만들기' 등 옛 생활 지식에 대한 정보는 별도 페이지를 마련해 설명하고 있다.

삶의 현장으로 이끄는 '현장 체험 학습' 7차 교육과정에 맞춰 출간되는 현장 체험 학습 책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문학동네의 <go go! 체험 학습> 시리즈는 어린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들여다보기 쉽도록 용수철 처리가 된 워크북 형태로 만들어졌다. '나는 역사가 좋다' '나는 박물관이 좋다' '나는 자연이 좋다' 등으로 나뉜 책마다 경운궁, 강화도 등 한가지 주제를 담았다. 체험 학습을 다녀오기 전 준비부터 다녀온 이후 정리까지 현장 체험 학습을 꼼꼼히 챙겨준다. 《지하철로 떠나는 365일 현장 학습 기행》(이명혜 · 이안나, 미래M&B)은 지하철 노선을 따라 궁궐, 박물관, 공원, 유적지 등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현장 학습지를 담았다. 지하철 출구번호, 가는 방법, 그곳의 역사적 · 사회적 배경도 꼼꼼하게 들려준다. 《최고의 박물관을 찾아라(전2권)》(김영사)는 서울 · 경기와 전국 편으로 나뉜 전국의 박물관을 모두 담았다. 국립박물관, 자연 속 박물관, 민속 박물관 등으로 나뉜 교통편은 물론,



요금, 관람시간 등을 세세하게 실었다.

성적 정체성의 모범 일깨우는 '여성 인물' 최근 기존의 위인전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여성인물을 발굴해 조명한 책들도 부쩍 늘고 있다. 기존 위인전기에 나오는 여성인물들이라면 헬렌 켈러, 유관순, 마리 퀴리, 신사임당, 나이팅게일 등이 보통이지만, 여성적 관점에서 이들의 삶을 다룬 경우는 흔치 않았다. 최근의 여성인물 책들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고민하고 깨달아갈 나이의 여자 어린이들에게 역할 모델이 될 만하다.

《여자는 힘이 세다!》(유영소 · 원유미, 교학사)는 제인 구달, 마리 퀴리, 아멜리아 에어하트, 마더 테레사 수녀, 아웅산 수치 등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세상을 바꾼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남성 중심의 역사에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 꿈을 이뤄낸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

아이세움이 펴내는 <여성인물> 시리즈는 남녀 차별을 뚫고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산 사람들, 남성만의 직업이었던 것에 최초로 도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엮었다. 한국 최초의 여성변호사 이태영, 최초의 여성 참정권운동가 수잔 B. 앤터니, 최초의 여성 유엔 인권위원장 엘리니 루스벨트, 최초의 대서양 횡단 여성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 등이 지금까지 소개된 인물들이다.

지구촌 화합의 축제 '월드컵' 월드컵 열기를 반영하듯 어린이용 월드컵 책도 출간되고 있다. 월드컵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있는가 하면 본격적으로 축구 테크닉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책도 눈에 띈다.

《철호네 가족이 떠나는 월드컵 여행(전3권)》(양동석, 현문미디어)은 월드컵의 역사를 만화로 풀어간다. 각 주최국들의 정치상황이나 역사적 사실들도 중간중간에 들어 있고 월드컵에 얽힌 여러 가지 해프닝도 소개한다.

《축구 이하는 만큼 보인다》(보비 룩슨 외, 엄지영, 아이세움)와 《축구 최고의 게임을 위한 가이드》(클라이드 기포드, 김성규, 다섯수레)는 본격적인 축구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축구 이하는 만큼 보인다》는 축구 테크닉, 다양한 경기 전술, 트레이닝 방법 등을 풍부한 사진 자료와 그래픽으로 엮은 것이 인상적이다. 《축구 최고의 게임을 위한 가이드》 역시 축구 기술과 전술, 프로 축구, 축구 선수 등 축구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한국 축구의 발전사와 함께 축구용어해설과 축구 관련 웹사이트도 소개한다.

—김장근 기자